

2026 공공기관 ESG 경영 대응 현황과 시사점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 | sskwon@ksa.or.kr | 02-6240-4741

국제인증교육센터 | sunshine23@ksa.or.kr | 02-6240-5607

KSAEDU

INDEX

목차

01 조사 개요

02 ESG 경영 대응 현황

- 전반적 수준
- 영역별 세부 수준

03 ESG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에 대한 인식

- 공시 가이드라인의 전략 수립 도움 여부
- 평가체계의 적절성

04 ESG 실행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 ESG 도입 및 확산 애로사항
- ESG 지표의 관리 난이도 및 개선 필요 영역
-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

05 요약 및 제언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체계 정립과 정보 공시의 표준화를 위해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단순 활동 수준에서 벗어나, **지표 기반 관리와 공시 중심의 체계적 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ESG 전략 수립, 데이터 관리,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체계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제 활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 가이드라인의 전략 수립 활용 수준
- ESG 실행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
- 기관 유형·규모·조직별 대응 수준의 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ESG 경영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인식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 ESG 실행 과정의 주요 제약 요인을 도출하고
- 기관 특성별 격차 구조를 분석하며
-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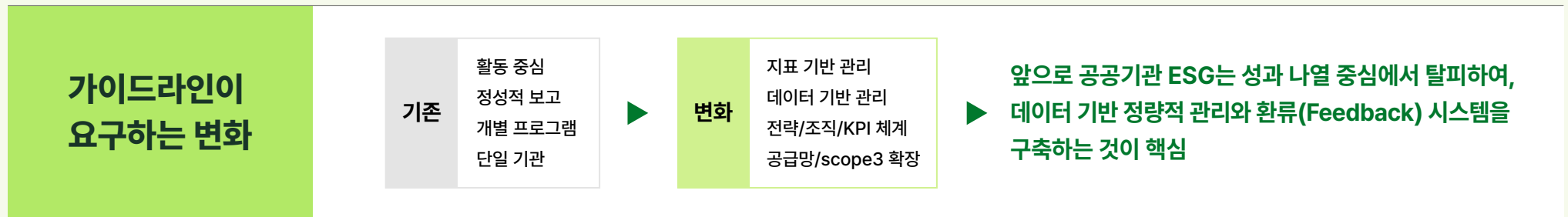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구조



총 37개 지표, 81개 세부지표 기반 관리 체계

▶ 공공기관 ESG를 '활동'이 아닌 '지표 기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



조사 목적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원 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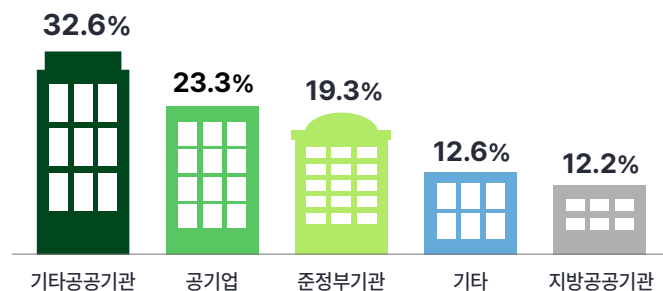
2026. 02. 26 ~ 03. 09(12일간)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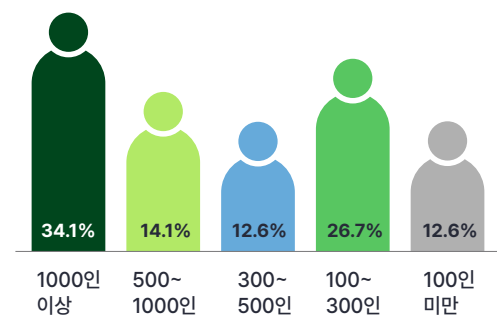
공공기관 ESG·경영공시 담당자(관계자)

응답자 특성 (총 2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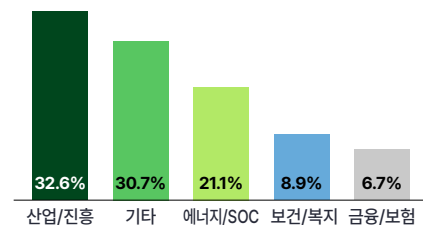
기관 유형



현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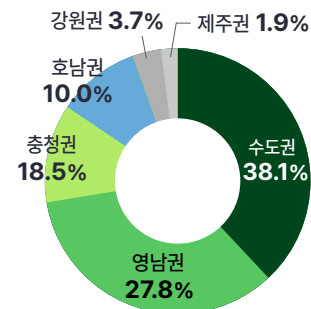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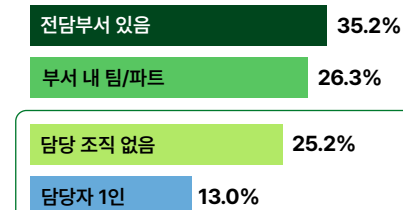


▶ 산업·진흥 + SOC 관련 기관이 약 53%
ESG 정책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관군 중심

소재지



ESG 조직 형태



▶ ESG 조직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

조사내용

본 조사는 공공기관 ESG 경영 현황 및 공시 가이드라인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ESG 3대 영역과 정책·운영 환경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하였다.



ESG 실행 수준부터 정책 수요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설계

자료 분석 및 해석방법

본 조사는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한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 수준을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응답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성숙도 단계별로 재구성(re-coding)하여 분석하였다.



① 성숙도 구분 기준

응답 결과는 단순 평균값이 아닌, 실제 실행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행 (Implementation)

“매우 그렇다”, “그렇다” (4~5점)

▶ 해당 활동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전환 (Transition)

“보통이다” (3점)

▶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체계화·내재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미이행 (Non-implementation)

“아니다”, “전혀 아니다” (1~2점)

▶ 해당 활동이 미실행 상태이거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상태

② 분석 기준 설정의 의의

본 분석에서는 특히 “보통” 응답을 중립값이 아닌 전환 단계(미완성 상태)로 해석하였다. 이는 조직 차원의 정책·제도 분석에서 “부분적 수행”과 “완전한 이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ESG 경영 수준은 단일 지표로 평가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이행 비율 | 실제 운영·정착 수준

전환 비율 | 향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영역

미이행 비율 | 제도 도입 및 초기 지원이 필요한 영역

③ 분석 활용 방식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 ESG 영역별(E/S/G) 성숙도 구조 분석

| 문항별 이행 수준 비교

| 기관 특성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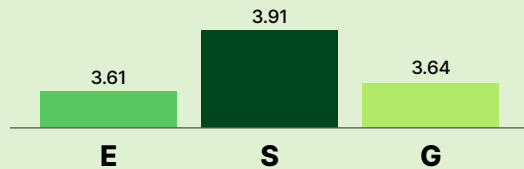
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ESG 경영의 전반적 수준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ESG 전반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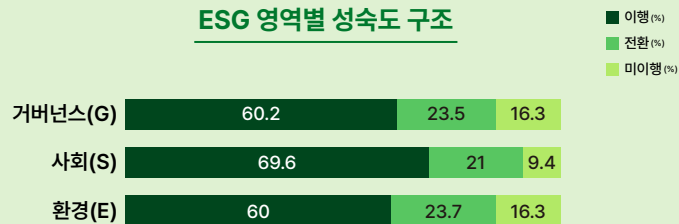
ESG는 전반적으로 실행 단계에 진입했으나, 사회는 정착, 환경·거버넌스는 전환 단계로 구조적 격차 존재

ESG 영역별 전반 수준(평균)



세 영역 모두 긍정응답(4~5점)이 평균 50%이상으로 공공기관 ESG 대응은 이미 일정 수준 진입했으나 세부 영역 간 불균형은 존재

ESG 영역별 성숙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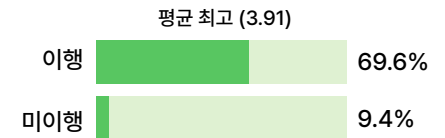
사회(S)는 기존 정책 기반으로 이미 제도화가 완료된 성숙 단계이며, 환경(E)은 기관 간, 항목 별 실행 수준 격차가 큰 과도기, 거버넌스(G)는 조직 내 내재화가 진행 중인 전환 단계로 나타났다

1 ESG 전반은 이미 "기초 도입 단계는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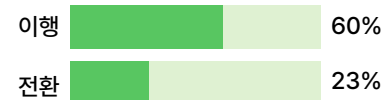
▶ 공공기관 ESG는 도입 여부 단계는 지나고, 실행 단계에 진입한 상태

2 사회(S)는 유일한 "완전 정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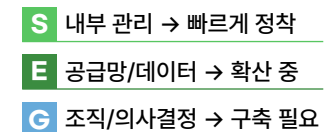
▶ 규제·정책 기반 영역은 이미 조직 내 표준 업무로 내재화된 상태

3 환경(E)·거버넌스(G)는 "과도기 구조"



▶ 실행은 시작됐지만 기관 간 수준 편차가 큰 전환 단계

4 ESG 격차의 본질은 "영역 차이"가 아니라 "성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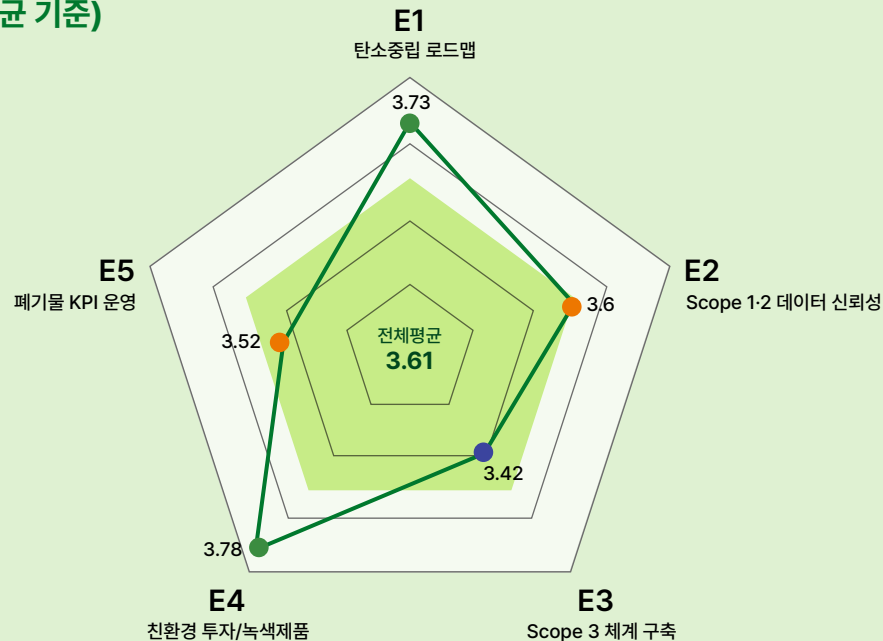


▶ ESG는 동시에 발전하지 않으며 영역별 요구 역량에 따라 성숙 속도가 다르게 나타남

2-1) ESG 영역별 세부 수준 - 환경(Environment)

내부 실행은 진행 중이나, 공급망까지 확장된 대응은 미흡한 상태

환경(E)영역 수준 진단 (평균 기준)



환경(E) 영역은 평균 3.61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대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친환경 투자(3.78), 탄소중립 전략(3.73)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Scope 3(3.42)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 내부에서 직접 관리 가능한 영역은 수행되고 있으나, 외부(공급망)까지 확장된 대응은 아직 부족한 상태

< 환경(E)영역 문항별 성숙도 구조 >

● 안정 ● 전환 ● 취약
■ 이행(%) ■ 전환(%) ■ 미이행(%)

● E1	탄소중립 로드맵	65.6	20	14.4
● E2	Scope 1-2 데이터 신뢰성	58.9	24.1	17
● E3	Scope 3 체계 구축	53.7	23	23.3
● E4	친환경 투자/녹색제품	66.6	25.6	7.8
● E5	폐기물 KPI 운영	55.2	25.9	18.9

이행 수준이 높은 영역 (이행 ≥ 60%, 미이행 ≤ 15%)

- E4 친환경 투자/녹색제품 : 평균 3.78, 이행 66.6%
- E1 탄소중립 로드맵 : 평균 3.73, 이행 65.6%

- 전략 및 투자 중심 영역은 실제 실행 단계에 진입
 - 특히 친환경 성과(E4)는 미이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아, 정책 수준을 넘어 실제 실행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영역으로 평가됨

전환 단계 영역 (수준 중간 + 구조 미정착)

- E2 Scope 1-2 데이터 신뢰성 : 평균 3.6, 전환 24.1%
- E5 폐기물 KPI 운영 : 평균 3.52, 전환 25.9%

- 평균 수준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전환 비율이 높아 기관 간 실행 편차가 존재하는 과도기적 상태

보완이 필요한 영역 (미이행 ≥ 20% 또는 이행 ≤ 55~60% + 전환 25%내외)

- E3 Scope 3 체계 구축(평균 3.42, 미이행 23.3%) → 명확한 취약 영역

- 평균과 성숙도 모두 가장 낮은 항목으로, 환경 영역 내 유일한 구조적 미성숙 영역
 - 공급망 기반 데이터 확보 및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 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에 한계가 존재

| 2-1) ESG 영역별 세부 수준 - 환경(Environment), 집단별 비교



환경(E) 영역의 격차는 '**기관 역량(규모 및 ESG 조직)**'차이에서 주로 발생함

규모

- 대규모(1,000인 이상) : E1, E3 이행 70%이상
- 소규모(100인 미만) : 이행 → 전환·미이행 집중

▶ 대규모 기관은 중장기 전략 수립 체계를 확보한 편이나 소규모 기관의 경우 ESG 정책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행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



ESG 조직 형태



- 전담조직 있음 → E1, E3 이행높음
- 없음 → 미이행 집중

▶ 특히 Scope 3는 “수준 차이”가 아니라 조직 유무에 따라 ‘이행 가능 vs 불가능’이 결정되는 영역



업종

- 제조/에너지 → E2, E5 이행 높음
- 서비스 → 전환중심

▶ “업종 특성에 따른 필요성 차이”에 의해 성숙도 격차 발생



기관 유형

- 공기업 → 전반적으로 이행 높음
- 기타 공공기관 →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전환 비율은 25%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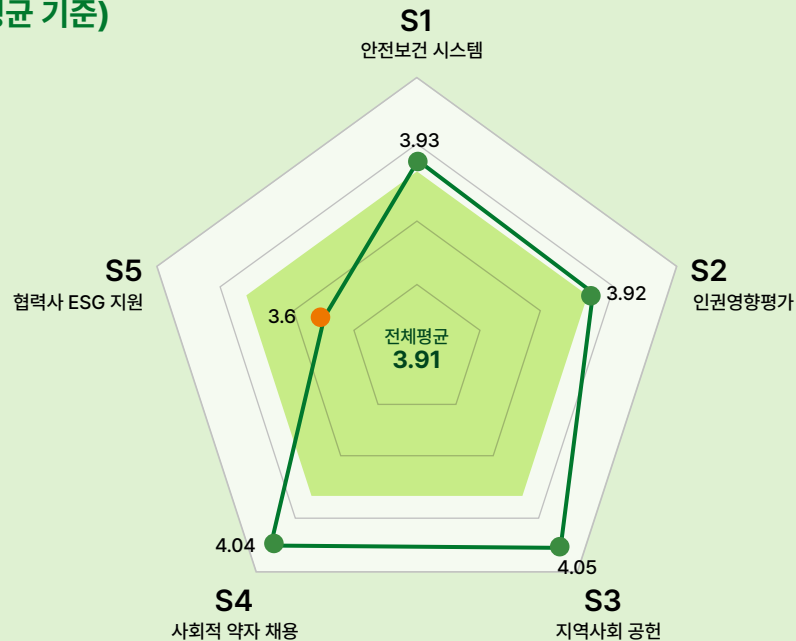
▶ 정책은 도입되었으나 실제 실행 수준은 기관별로 상이한 과도기적 상태



2-2) ESG 영역별 세부 수준 - 사회(Social)

내부 중심 ESG는 완료, 외부 확장은 진행 중인 상태

사회(S)영역 수준 진단 (평균 기준)



사회(S) 영역은 전반적으로 3.91 내외의 높은 평균 수준을 보이며, ESG 3대 영역 중 가장 높은 성숙도를 나타낸다. 다만 협력사 ESG 지원(3.6)은 상대적으로 낮아

▶ 내부 구성원 중심 활동은 정착된 반면,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확장된 활동은 아직 제한적인 상태

< 사회(S)영역 문항별 성숙도 구조 >

● 안정 ● 전환 ● 취약
■ 이행(%) ■ 전환(%) ■ 미이행(%)

● S1 안전보건 시스템	71.9	17	11.1
● S2 인권영향평가	71.1	20.4	8.5
● S3 지역사회 공헌	75.6	18.9	5.6
● S4 사회적 약자 채용	74	20.4	5.6
● S5 협력사 ESG 지원	55.6	28.5	15.9

● 이행 수준이 높은 영역 (이행 ≥ 60%, 미이행 ≤ 15%)

- S3 지역사회 공헌 : 평균 4.05, 이행 75.6%
- S4 사회적 약자 채용 : 평균 4.04, 이행 74.0%
- S1 안전보건 시스템 : 평균 3.93, 이행 71.9%
- S2 인권영향평가 : 평균 3.92, 이행 71.1%

- 평균과 이행 비율이 모두 높아 사회 영역의 핵심 활동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정착단계

● 전환 단계 영역 (수준 중간 + 구조 미정착)

- S5 협력사 ESG 지원 : 평균 3.6, 전환 28.5%

- 평균은 일정 수준이나 전환비율이 높아 외부 이해관계자 확장 과정의 과도기적 영역
즉, 정책은 도입되었으나 실행 수준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상태

● 보완이 필요한 영역 (미이행 ≥ 20% 또는 이행 ≤ 55~60% + 전환 25%내외)

- 해당없음

- 사회 영역은 구조적 미이행 영역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운영단계 진입

| 2-2) ESG 영역별 세부 수준 - 사회(Social), 집단별 비교



사회(S) 영역의 집단 간 차이는 대부분 '협력사 ESG지원(S5)'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내부 영역(S1~S4)은 집단 차이보다 전반적 정착 수준이 더 높은 상태

규모

- 대규모(1,000인 이상) : S5 이행 중심(60% 내외)
- 소규모(100인 미만) : S5 전환 비중 높음(30% 내외)

▶ 협력사 ESG 지원은 규모에 따라 실행 수준이 갈리며,
대규모 기관은 외부 확장까지 이행된 반면 소규모 기관은
실행 체계가 부족한 과도기 상태



ESG 조직 형태

- 전담 조직 있음 → S5 이행 진입, S2 이행 높음
- 없음 → S5 전환 및 일부 미이행 집중

▶ 협력사 ESG는 조직 기반이 있어야 실행 가능하며,
조직 유무에 따라 '이행 여부'가 결정되는 대표 영역



업종

- 제조·공급망 기반 업종 → S5 이행 높음
- 서비스 중심 업종 → S5 전환 비중 높음

▶ 협력사 ESG 수준은 공급망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업종 특성이 외부 ESG 확장 수준을 결정



기관 유형

- 공기업 → S1, S4 이행 70% 이상 안정적
- 기타 공공기관 → S1, S4 전환 일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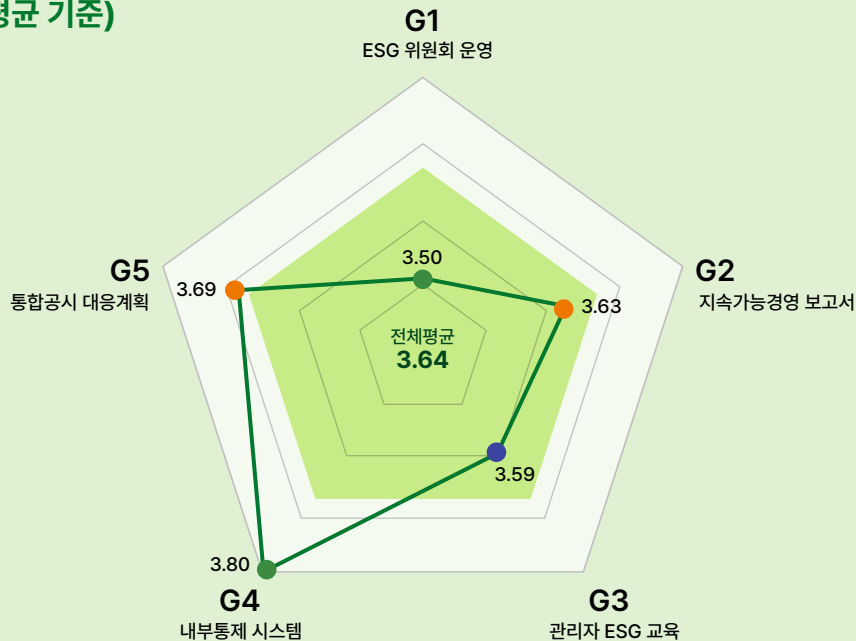
▶ 공기업은 정책 및 평가 영향으로 이행이 정착된 반면,
기타 기관은 실행 수준이 기관별로 상이한 상태



2-3) ESG 영역별 세부 수준 - 거버넌스(Governance)

실무는 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고 방향을 정하는 구조는 부족한 상태

거버넌스(G)영역 수준 진단 (평균 기준)



거버넌스(G) 영역은 평균 3.64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대응 체계는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통제(G4)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3.8)을 보인 반면, ESG 위원회(G1)는 가장 낮은 수준(3.5)을 나타내

▶ ESG를 “관리하는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결정하는 구조”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 거버넌스(G)영역 문항별 성숙도 구조 >

⚙️ 안정 ⌚ 전환 ⚠️ 취약
■ 이행(%) ■ 전환(%) ■ 미이행(%)

⚠️ G1 ESG 위원회 운영	54.4	25.2	20.4
⌚ G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60.7	22.2	17
⌚ G3 관리자 ESG 교육	55.9	26.7	17.4
⚙️ G4 내부통제 시스템	67	20.7	12.3
⚙️ G5 통합공시 대응 계획	63	22.6	14.4

⚙️ 이행 수준이 높은 영역 (이행 ≥ 60%, 미이행 ≤ 15%)

- G4 내부통제 시스템 : 평균 3.8, 이행 67%
- G5 통합공시 대응 계획 : 평균 3.69, 이행 63%

- 실제 운영 및 관리 활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전환 단계 영역 (수준 중간 + 구조 미정착)

- G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균 3.63, 전환 22.2%
- G3 관리자 ESG 교육: 평균 3.59, 전환 26.7%

- 제도 도입 이후 조직 내 확산이 진행 중인 과도기적 단계

⚠️ 보완이 필요한 영역 (미이행 ≥ 20% 또는 이행 ≤ 55~60% + 전환 25%내외)

- G1 ESG 위원회 운영: 평균 3.5, 미이행 20.4%

- 유일하게 미이행 20% 이상 → ESG를 의사결정하는 조직이 없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미정착 핵심 영역

| 2-3) ESG 영역별 세부 수준 - 거버넌스(Governance), 집단별 비교



거버넌스(G) 영역의 집단 간 차이는 대부분
'ESG를 담당하는 조직과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에서 발생

규모

- 대규모(1,000인 이상) : G1, G5 이행 65~70% 수준
- 소규모(100인 미만) : G1 미이행 집중, G3 전환 비중 높음

▶ 대규모 기관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이루어진 반면,
소규모 기관은 위원회 및 교육 체계가 미정착된 초기 단계



ESG 조직 형태

- 전담 조직 있음 → G1, G2, G5 이행 높음
- 없음 → G1 미이행 집중 (20% 이상)

▶ ESG 조직이 없는 경우 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우며,
거버넌스는 조직 유무에 따라 '구축 vs 미구축'이 결정되는 영역



업종

- 금융/에너지/규제 산업 → G2, G5 이행 높음
- 기타 업종 → G3 전환 중심

▶ 규제 및 공시 요구 수준에 따라
거버넌스 대응 수준 차이 발생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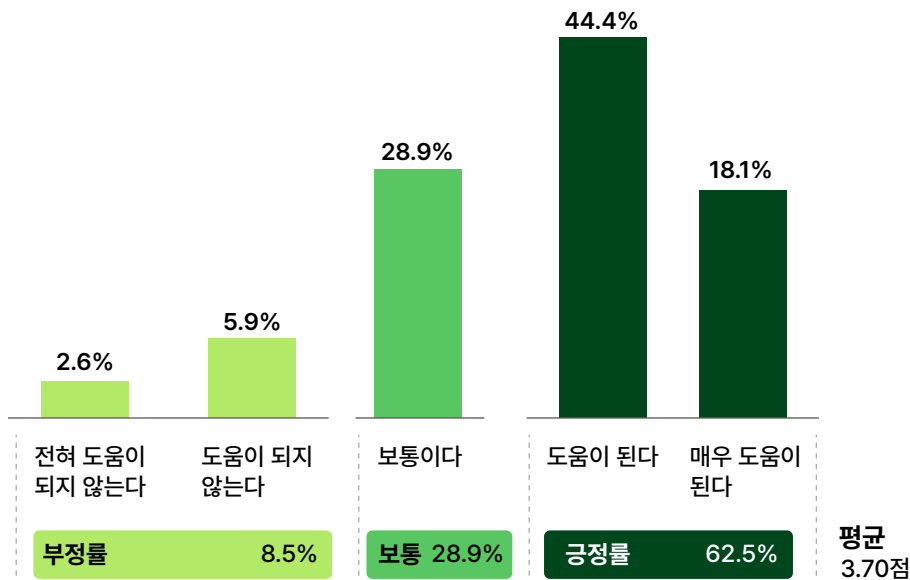
- 공기업 → G2, G5 이행 60% 이상 안정적
- 기타 공공기관 → G1 전환-미이행 혼재

▶ 공기업은 공시 및 관리 체계가 정착된 반면,
기타 기관은 거버넌스 구조 구축 단계에 머무름



3-1) 공시 가이드라인의 전략 수립 도움 여부

공시 가이드라인의 전략수립 도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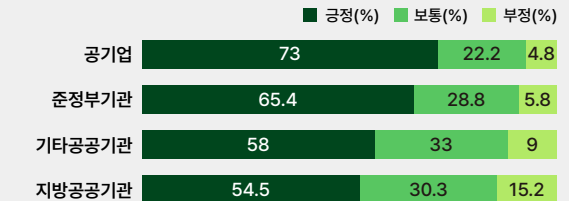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한 방향성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
다만 “도움은 되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추가 세분화와 지원이 필요”

기재부 ESG 공시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우세
ESG 조직 형태 > 기관 규모 > 기관 유형에 따른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남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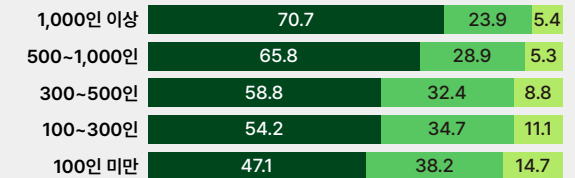
기관 유형	평균
공기업	3.88
준정부기관	3.74
기타공공기관	3.63
지방공공기관	3.55



- 공기업 : 긍정 73.0%, 부정 4.8% → 가장 안정적
- 지방공공기관 : 긍정 54.5%, 부정 15.2% → 부정 최고
- 지방 공공기관에서 공시 가이드라인 활용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현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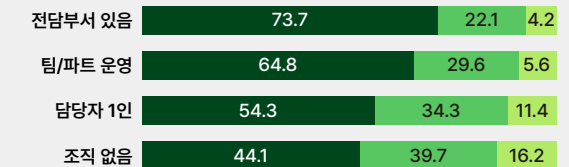
현원 규모	평균
1,000인 이상	3.91
500~1,000인	3.78
300~500인	3.65
100~300인	3.57
100인 미만	3.42



- 1,000인 이상 기관 : 긍정 70.7%, 부정 5.4%
- 100인 미만 기관 : 긍정 47.1%, 보통 38.2%, 부정 14.7% → 긍정 격차 23.6%
- 특히 소규모 기관에서는 보통 응답이 38.2%로 높게 나타나, 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에는 제약이 있는 전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됨

ESG 조직 형태

ESG 조직 형태	평균
전담부서 있음	3.95
팀/파트 운영	3.78
담당자 1인	3.56
조직 없음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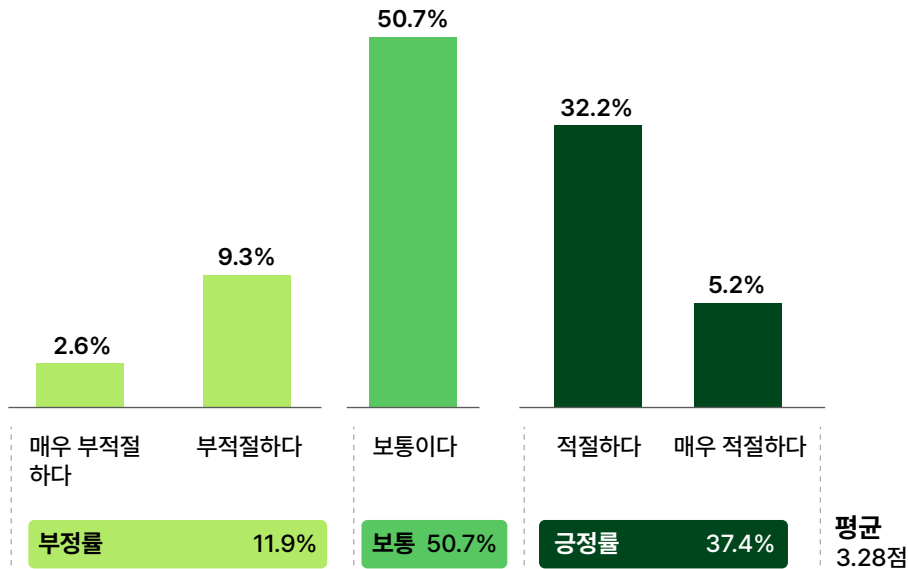


-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 긍정 73.7%, 부정 4.2% → 전체 집단에서 가장 긍정적인 값
- 관련 조직이 없는 경우 : 긍정 44.1%, 보통 39.7%, 부정 16.2% → 전체 집단에서 가장 부정적인 값

“ESG 조직 형태”에 따라 공시 가이드라인 전략수립 도움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

3-2) 평가체계의 적절성

경영평가 내 ESG 배점·평가방식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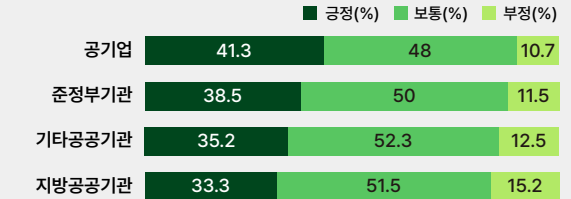


현행 평가체계는 강한 긍정도, 강한 부정도 아닌 '유보적 수용' 상태
가이드라인 자체보다,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의 설계가 더 큰 쟁점

경영평가의 ESG 배점·평가 방식은 "보통"이 절반
기관 유형, 규모, 업종, ESG 조직 형태 등 모든 집단에서 유사한 응답 구조
공공기관 전체에서 ESG는 하고 있지만, 평가 방식은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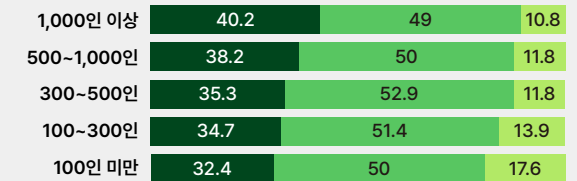
기관 유형	평균
공기업	3.36
준정부기관	3.31
기타공공기관	3.25
지방공공기관	3.21



- 긍정 응답 최대 격차 : 41.3% vs 33.3% → 8.0% p 차이
- 전체적으로 큰 차이 없음 → 기관 유형별 평가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모든 집단에서 "보통"이 가장 큼

현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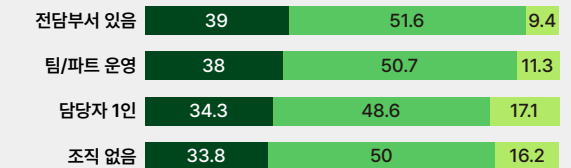
현원 규모	평균
1,000인 이상	3.34
500~1,000인	3.30
300~500인	3.27
100~300인	3.25
100인 미만	3.22



- 최대 격차 : 40.2% vs 32.4% → 7.8% p
- 소형 기관 : 부정 증가(17.6%) → 평가체계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
- 하지만 여전히 "보통"이 중심

ESG 조직 형태

ESG 조직 형태	평균
전담부서 있음	3.32
팀/파트 운영	3.30
담당자 1인	3.26
조직 없음	3.24



- 최대 격차 : 약 5% p → ESG 조직 있음/없음 차이 거의 없음
- 가이드라인 활용 여부와 달리, 평가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 유무와 관계 없이 유사하게 나타남

4-1) ESG 도입 및 확산 애로사항

ESG 애로사항은 인력·지표·데이터 등 실행 기반 문제에 집중 → ‘의지’가 아니라 ‘실행 여건 및 인프라’의 문제

ESG 도입 및 확산 애로사항(1-2순위, 복수응답)

전담인력부재	101	43
평가지표 표준화/가이드라인 명확화	74	41
평가 지표의 모호성	42	54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32	48
경영진 인식 부족	17	24
기타	4	

단위 : 명

1.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 문제 구조”이다

- 인식 문제를 제외한 대다수 문항 응답이 약 30% 이상
- 특정 1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동시에 작용
- ESG 추진은 개별 요소가 아닌 통합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영역

2. 기존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인력보다 기존/데이터 관련 문제가 더 넓게 퍼져있음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 실행 이전 단계에서 막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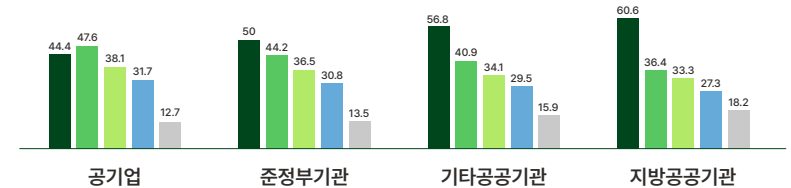
3. ESG는 ‘의지 문제’가 아닌 ‘상태 문제’로 전환됨

- 인식 부족 : 15.2%(최저), 인력부족 : 53.5%(최고) → 약 3.5배 차이
- 과거 ESG는 “해야 하나?” 문제였다면, 현재는 “어떻게 하지?”의 문제

4. ESG는 “데이터 기반 체계”에서 병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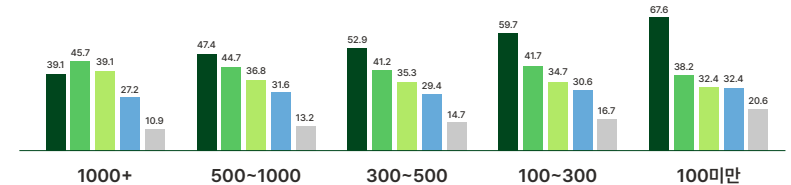
- ESG는 결국 측정해야 하고, 공시해야 하고, 비교해야 함
- ESG의 본질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며, 여기서 주요 병목이 발생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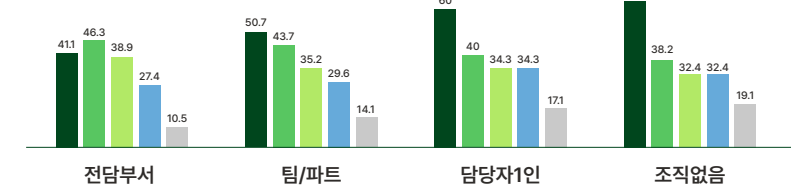
- 인력 부족 : 공기업 44.4%, 지방공공기관 60.6% → 16.2%p 차이
- 평가지표 표준화 : 공기업 47.6%(가장 높음)
- 공기업은 기존 문제, 지방·기타기관은 인력 문제가 핵심

현원 규모



- 인력 부족 : 1,000인 이상 39.1%, 100인 미만 67.6% → 28.5%p 차이
- 경영진 인식부족 : 1,000인 이상 10.9%, 100인 미만 20.6% → 약 10%p 차이
- 소규모 기관일수록 실행 기반 제약 존재

ESG 조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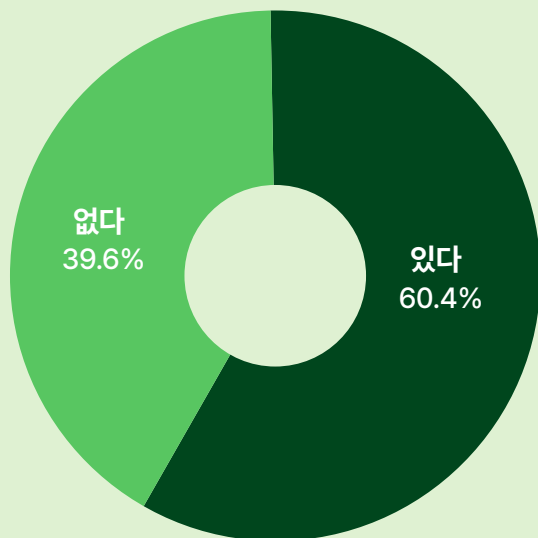


- 인력 부족 : 전담부서 존재 41.1%, 조직 없음 64.7% → 23.6%p 차이
- 평가지표 표준화 : 전담부서 존재 46.3%(가장 높음)
- 조직 유무에 따라 ESG 애로 유형 차이 발생(초기 : 인력 → 운영단계: 기준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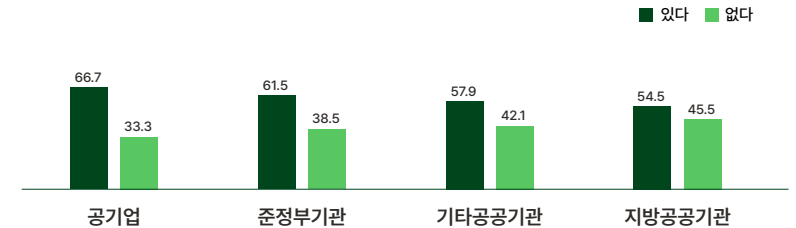
4-2) ESG 지표의 관리 난이도 및 개선 필요 영역

관리하기 어려운 지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나타나, 과반 이상의 기관이 ESG 지표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
조직 규모가 크고, ESG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수록
지표 적용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을 명확하게 인식

Q | 재정부 ESG 가이드라인에서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지표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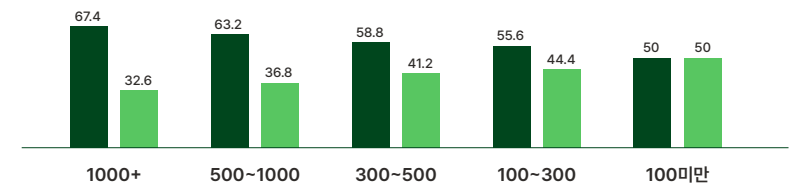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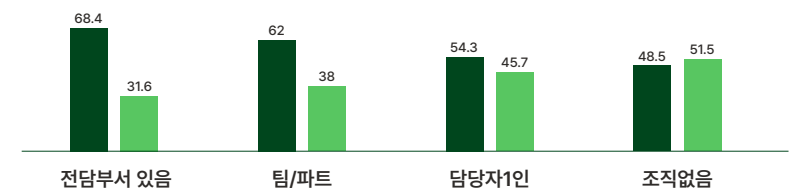
• 어려운 지표가 있다 : 공기업 66.7%, 지방공공기관 54.5% → 12.2%p 차이
→ ESG 운영 경험이 축적된 기관일수록 지표 적용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

현원 규모



• 어려운 지표가 있다 : 1,000인 이상 67.4%, 100인 미만 50.0% → 17.4%p 차이
→ 기관 규모에 따라 ESG 운영 수준 및 적용 범위에 차이가 존재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Scope 3, 협력사 관리 등 보다 확장된 영역까지 ESG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ESG 조직 형태



• 어려운 지표가 있다: 전담부서 있음 68.4%, 조직 없음 48.5% → 19.9%p 차이
→ 조직 구축 이후에는 실행 자체보다 관리 체계의 정교화가 주요 과제로 전환 되는 경향
→ 반면 ESG 조직이 없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실행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표의 난이도보다는 인력 및 기반 부족이 주요 제약으로 작용

4-2) ESG 지표의 관리 난이도 및 개선 필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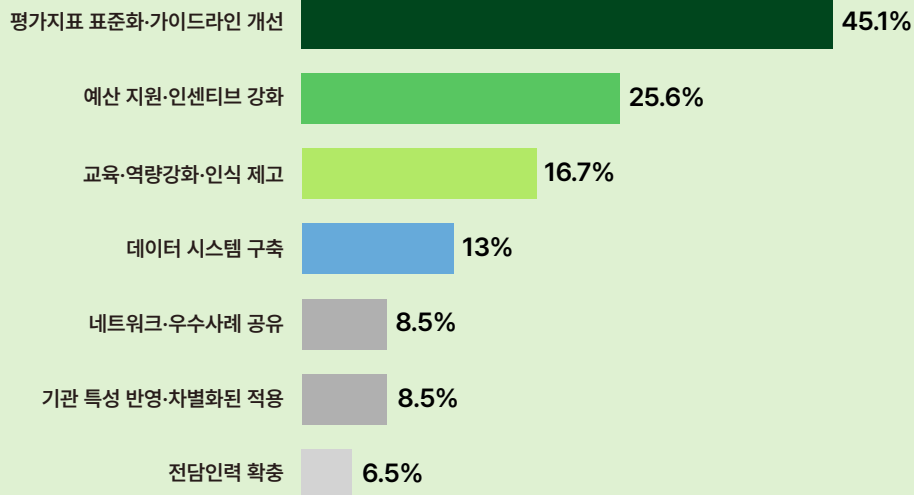
관리하기 어려운 지표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협력사 ESG 및 Scope 3 등 외부 의존도가 높은 지표, 기관 특성과 맞지 않는 지표, 정성적 평가 지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지표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업체 탄소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배출시설이 없어 지표 적용이 불가능함” 등의 응답을 통해, 일부 지표는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됨



4-3)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

공공기관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지원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가 전체의 4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ESG 정책의 핵심 과제가 기준 체계 정비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산 지원(25.6%), 역량 강화(16.7%) 요구가 동시에 나타나 ESG 경영이 단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실행 기반과 재정적 부담이 결합된 복합적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Q | 공공기관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무엇입니까?(주관식)



평가지표·가이드라인 개선
45.1%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가 많아 실제 적용이 어려움"
"지표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부족하여 실무적으로 혼란 발생"

예산 지원·인센티브 강화
25.6%

"환경 분야 개선은 예산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지표를 수행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함"

교육·역량강화·인식 제고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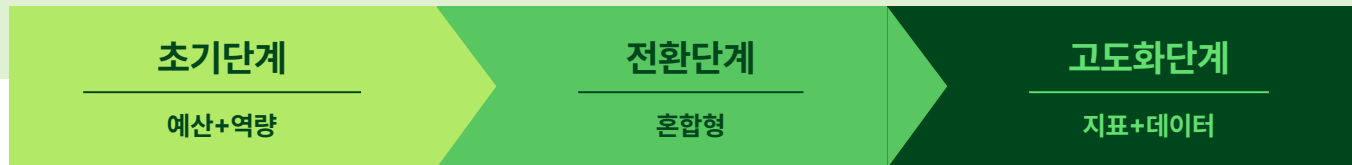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
"고위직 ESG 인식 개선 및 의사결정 참여 유도가 어려움"

데이터 시스템 구축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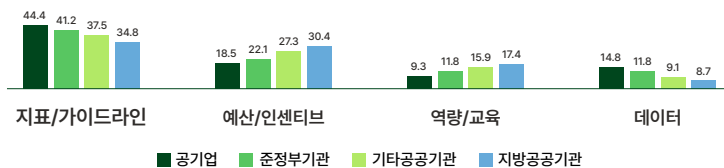
"협력업체 탄소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외부 데이터 기반 지표는 관리가 어려움"

4-3)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

기관 유형과 조직 수준에 따라 ESG 정책 요구는 '실행 지원 → 고도화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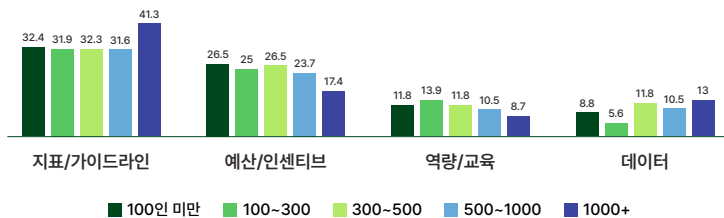
기관 유형



- 공기업 → 지표+데이터 중심
- 지방·기타기관 → 예산+역량 중심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에서 평가지표 개선 요구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예산 지원 요구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이 ESG 운영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지방공공기관은 실행 기반 확보가 주요 과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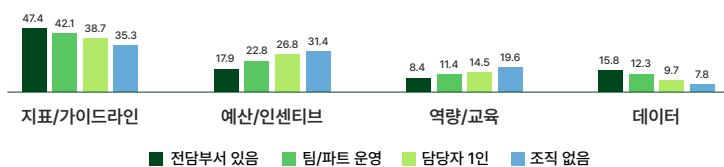
현원 규모



- 대형기관 → 지표+데이터 중심
- 소형기관 → 예산+역량 중심

현원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관에서 평가지표 개선 요구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0인 미만 기관에서는 예산 지원 요구가 2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커질수록 역량 강화 요구는 감소하고, 데이터 시스템 구축 요구는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소규모 기관은 실행기반 확보, 대규모 기관은 운영 고도화가 주요 과제임을 보여준다.

ESG 조직 형태



- ESG 전담조직 있음 → 지표+데이터 중심 : ESG를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
- ESG 관련 조직 없음 → 예산+역량 중심 : ESG를 할 수 있게 해달라!

ESG 조직 형태별로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에서 평가지표 개선 요구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조직이 없는 기관에서는 예산 지원(31.4%)과 역량 강화(19.6%)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ESG 조직 구축 여부에 따라 정책 요구가 실행기반 확보에서 운영 고도화로 전환되는 구조를 보여 준다.

| 5-1) 공공기관 ESG 경영 대응 및 인식 현황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의 현 수준, 공시 가이드라인의 활용도, 실행 과정의 제약 요인, 그리고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요를 통합적으로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이미 '도입 여부'의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진입했으나, 영역별·기관별 성숙도 격차가 지속되는 구조적 과도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ESG 현황

- ESG는 도입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진입
- 영역별 성숙도 차이 존재
 - S(사회) : 정착 단계
 - E(환경) : 전환 단계(특히 Scope 3 취약)
 - G(거버넌스) : 관리활동은 안정, 의사결정 구조는 미정착

공시 가이드라인 및 평가 인식

- 가이드라인 : 전반적으로 긍정, 그러나 규모·ESG 조직 유무 따라 격차
- 평가체계 : “보통”이 절반
→ 평가 설계에 대한 유보적 수용

실행 과정의 핵심 애로사항

- 단일 문제가 아닌 복합 구조적 문제
- 인력 부족보다 지표 모호성, 데이터 확보가 더 큰 제약
- Scope 3·협력사 ESG·정성지표 등 기관 통제 밖 지표에서 난이도 집중



ESG는 이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의 문제
기관 규모·조직 유무·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는 구조

| 5-2) 공공부문 ESG 고도화를 위한 핵심 과제

앞으로의 ESG 고도화 핵심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실행 기반이 다른 기관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책 표준화-데이터 기반 체계-기관 역량 강화가 맞물린 3단계 고도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때, 공공기관 ESG 경영은 단순 준수 수준을 넘어 실질적 공공가치 창출 체계로 정착될 것이다.

기관차원

1) ESG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

- 실무 중심에서 벗어나, 위원회·전담조직·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 중소형 기관은 공동 ESG 위원회(통합형) 또는 광역 단위 협력 구조 등 현실적 대안 검토

2) 환경·공급망 중심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 환경 영역에서 특히 취약한 Scope 3, 폐기물, ESG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단계별로 구축
- 협력사 ESG는 업종별 특성을 먼저 고려한 최소 기준 → 확대 적용 방식으로 접근



실무차원

1) 데이터 중심 ESG 체계로의 전환 준비

- 기존 활동 위주의 보고에서 벗어나 KPI-데이터-공시 체계를 일관되게 연결하는 내부 프로세스 구축
- 데이터 관리 담당자 지정, 검증 절차 마련 등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 마련이 필요

2) 정성지표 대응을 위한 매뉴얼화·사례화

- 인권·윤리·사회 공헌 등 정성 영역은 평가 기준에 맞춘 사례·증빙 중심의 운영 매뉴얼 구축이 효과적
- 유사 기관 간 사례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평가 대응의 예측 가능성 확보
-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 기반의 매뉴얼 구축을 통해 대외 공신력,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ESG, 이제 '실행'과 '데이터 관리 및 검증'의 단계입니다.

KSA는 가이드라인 대응부터 인증·평가·교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우리기업의 인재양성,
KSA가 함께합니다.

ksaedu.or.kr

ESG 실무대응 서비스



1. ESG 가이드라인 검증

“작성은 끝났습니까? 이제 ‘검증’ 단계입니다”

- 정책 연계 지표·관리체계·성과·공시까지, ESG 보고서의 완성도를 종합 검증
- 보고서를 ‘제출용’에서 ‘관리 가능한 체계’로 전환



2. 인권영향평가

“리스크는 사전에, 평가는 전략적으로”

- 정책·사업·운영 전 과정의 인권 리스크 진단 및 경영평가 대응 강화
- 인권경영 수준 점검 + 평가 대응력 동시 확보



3. ESG ISO 인증

“ESG를 ‘체계’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 ISO/UNDP 53001·ISO 20400 리스크-운영-공급망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대외 신뢰도 동시 제고

문의 | 인권영향평가, 공급망관리 : ksyoun@ksa.or.kr, 02-6240-4745
ESG관련 ISO 인증, 가이드라인 검증 : slayk96@ksa.or.kr, 02-6240-4748

소개서 다운로드

ESG 교육 프로그램



1.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대응 실무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

→ E, S, G 항목별 보고서 작성방법 이해



2.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실무

“탄소중립,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세요”

→ 배출량 산정부터 감축 시나리오 수립까지



3. ISO 37001/37301(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KAR/GPC승인]

“국제표준 기반 ESG 전문가로 거듭나기”

→ 조직의 부패방지/준법경영 시스템 평가방법 학습



4. [등록민간자격] 인권영향평가사

“인권경영 달성과 인권교육실적을 한번에”

→ 평가 절차 이해 + 자격 취득

문의 | 국제인증교육센터 : hslim@ksa.or.kr, 02-6240-5615

교육신청: ksaedu.or.kr

KSAEDU

THANK YOU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 | sskwon@ksa.or.kr | 02-6240-4741

국제인증교육센터 | sunshine23@ksa.or.kr | 02-6240-5607

KSA EDU